

韓國政治體系의 研究方法論

—圖式的 類型化의 한 試圖—

安 文 錫

第一章 序 論

後進國의 政治研究는 政治制度의 分析考察에 立脚한 傳統의 方法이 支配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傳統의 方法이 지나치게 記述的(descriptive)이며 靜態的(static) 方法이었기 때문에 政治社會의 非形式的 側面(Informal Aspects)이 等閑視되었다.

이에 對한 反撥로서 나타난 것이 美國에서 主로 發達을 본 政治體系理論(Political System Theory)으로서, T. Parsons, R.K. Merton 등을 中心으로 하는 機能學派(Functionists)에 依해 唱導되었으며 이러한 機能主義的 立場에서 政治理論을 展開한 學者로는 G.A. Almond, J.S. Coleman, L.W. Pye, O.A. Rostow, W. Weidner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以上の 諸學者의 理論은 그 性質上 均衡理論(equilibrium)의 性質을 갖기 때문에 政治變動, 社會變動의 動的인 側面이 소홀히 되었다.

이와같은 均衡理論의 缺點을 克服하기 爲한 새로운 方法論으로서 R. Dahrendorf, L.A. Coser 등을 中心으로 하여 葛藤理論(Conflict Theory)이 나타난 것이다.

均衡理論가들은 葛藤을 社會的 疾病(social disease)으로 生覺하고 社會發展을 沮止시키는 要因으로 보나, 葛藤理論의 立場에서는 오히려 葛藤을 社會發展의 重要한 要因으로 본다.

本 論文에서는 圖式化에 依해 以上の 均衡理論과 葛藤理論을 調和시키며, 政治體系의 安定과 發展을 同時에 究明하고자 企圖한 것이다.

葛藤에 對한 見解는 時代에 따라 各已 相異하였다.

近世, 初期의 政治學者들, 卽 Thomas Hobbes, J.J. Rousseau, James Madison 같은 이들은 社會에 存在하는 葛藤現象을 社會 및 政治現象에 對해 “dysfunction”하게 作用하는 것으로 理解한 것 같다.

그러나, 葛藤理論의 元祖라 할 수 있는 George Simmel⁽¹⁾ 같은 이는 오히려, 葛藤이 人間의 社會生活(association)에 對해 統合的 機能을 하며(Simmel은 人間사이의 相互交涉關係를 “sociation”이라 불렀다) 社會의 多樣한 二重의 性格(divergent dualism)의 解決策으로서 社會의 團合을 達成하는 데 寄與하는 것이라고 生覺했다.

이와같은 葛藤에 對한 積極的 見解는 Edward A. Ross(1920), Quincy Wright(1942) Max Gluckman(1955), Lewis A Coser(1956), Robert C. North(1960), Dentler, Erikson(1959) 등을 通하여 支持를 받으면서 發展되어 나왔다.⁽²⁾

그러나 이와같은 葛藤에 對한 積極的 見解에 對해 T. Parsons, G.A. Lundberg, Mayo Lloyd, Warner, Kurt Lewin 등 現代의 學者들은 葛藤을 社會에 對해 “dysfunctional”한 것으로 規定하여 社會管理(Social Management)를 通해 또는 社會科學의 發達에 依해 減少시켜야 할 社會的 疾病(endemic

(1) George Simmel, Conflict, Trans, Kurt H. Wolff. Glencoe, The Free Press, 1955.

(2) Ralph M. Goldman, “A Theory of Conflict Processes and Organizational Offices,” Conflict Resolution, Vol X, No. 3 Sept. 1966 p. 328.

(3) Lewis A. Coser, The Functions of Social Conflict, The Free Press, Glencoe, Ill. 1956.

disease)으로서取扱하고 있다. (3)

要컨대, 社會的 葛藤(social conflict)은 葛藤이 發生하는 社會的 環境에 따라서, 또 葛藤自體의 類型如何에 따라서 社會現象이나 政治現象에 對한 그의 有用도가 決定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葛藤이 社會에 對해 有用한 作用을 하든 有用치 못한 作用을 하든, 葛藤이 政治體系, 社會體系의 發展에 對한 重要한 影響因子(effecting factors)로서 作用한다는 데는 葛藤論者 뿐만 아니라 均衡理論家들도 認定하고 있는 것 같다.

本 研究에서는 이러한 性質을 具有하고 있는 社會葛藤의 概念을 分析手段으로 하여 政治體系에 있어서의 後進性的 「脫皮點」을 模索하며 後進政治體系의 運動方向, 經濟發展과 政治體系의 關係等 問題를 論及하고, 끝으로 韓國政治體系의 位置와 方向 그리고 그 展望에 關하여 經濟學的 圖式의 方法을 導入하여 그 究明을 試圖해 보려는 것이다.

第二章 政治體系의 圖式的 類型化

第一節 一般的 均衡理論의 圖式化

政治體系에 關한 論議에는 一般理論(General Theory) 中範圍理論(Middle Range Theory)等 一般化 및 抽象化의 程度를 基準으로 하여 分類하는 方法이 一般的이다.

David Easton은 「Political System Theory」에서 政治의 概念을 規定하여 「政治研究」(Politics)는 社會를 爲한 權威的決定(Authoritative Decisions)이 如何히 形成·執行되어 나가는 가(4)를 研究하는 것이라 하여 政治를 「稀少한 價值」(Scarce Value)의 權威的 分配過程으로 理解하고 있다.

그의 定義에 따르면, 政治體系는 ①稀少한 社會的 價值的 配分 ②配分機能의 權威性(Authoritativeness) ③權威的配分(Authoritative Allocation)의 社會的 結集作用이라는 세

가지 特徵的 機能을 具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政治體系를 餘他社會體系와 相異한 屬性을 가지며, 政治生活를 其他社會生活와 分離可能하며 政治가 作用하고 있는 環境에 依하여 들러 끼여진 하나의 實體로서 認識하는 立場에서는 政治體系에 關하여 公式의 定立模型化가 可能하게 된다. (5)

模型化를 爲해서는 于先, 體系에 作用하는 變數의 定立이 必要하다.

政治體系를 構成하는 變數(variables)로서는 ①稀少한 價值(scarce value)-政治體系의 對象, 客體, ②投入機能으로서의 欲求 ③產出機能으로서의 決定(decisions)과 政策(policies)을 들 수 있다.

政治體系는 「欲望의 無限性에 對한 價值(Value)의 稀少性」에서 出發한다고 할 수 있으며, 欲求(Demand)는 支持(Support)를 수반함으로써 政治體系의 獨立變數(independent variables)로서 機能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變數는 相互作用을 통하여 政治體系를 維持시키며 發展시킨다.

以下, 이들 變數사이의 關係를 函數化하여 政治體系의 構造를 分析하고, 政治體系의 運動方向을 模索할가 한다.

第一項 Demand Curve

「欲求」와 客體로서의 「價值」사이에는 다음과 같이 函數關係가 成立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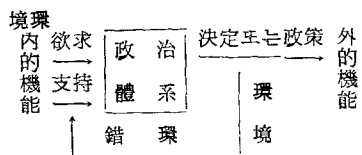
$$V=f(D)$$

(但, V는 「價值」 D는 「欲求」를 나타낸다)

위의 函數關係에서 보면 社會的으로 欲求의 量이 많아지고, 強度가 深化될 수록 對象으로서의 「價值」는 더욱 價値있는(valuable) 것으로 된다.

또, 逆으로, 價値가 많은 것일 수록 欲求(Demand)가 一層 많아 진다고 볼 수 있다.

그 結果, 위의 函數關係는 다음과 같이 圖式化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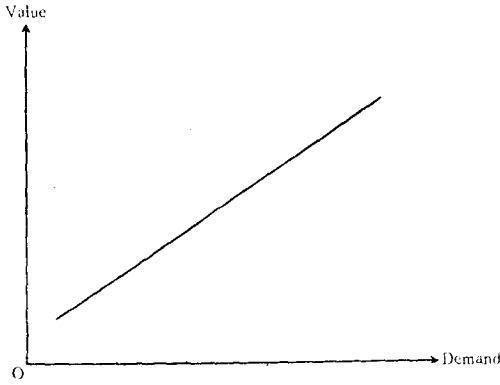


Ibid, p. 387

(4) David Easton, "An Approach to the Analysis of Political System." World Politics, Vol IX No. 3 April. 1957 p. 383.

(5) David Easton은 政治體系를 하나의 公式속에 包含시키 內的機能(Input Function)→政治體系 또는 過程(Political System or Process)→外的機能(Output Function)의 簡單한 模型의 定立을 試圖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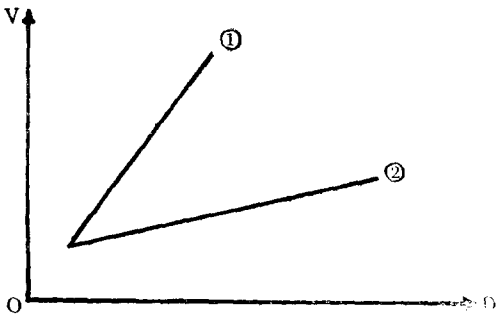
(6) 曲線의 形態가 아래로 볼록한가 위로 볼록한가는 「價値의 類型」과 價値의 增加에 對한 欲求(Demand)의 伸縮性(elasticity)에 따라서 相異해 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本 論文에서는 論議의 便宜上 直線으로 表示했다.



〈그림 1〉

上記 圖에 있어서 直線(Demand Curve 라 부르기 로 한다)의 傾射는 欲求와 價値사이의 伸縮度(elasticity)를 나타낸다.

伸縮度는 價値量의 變化程度를 表示하며 價値의 變化率과 이것에 對應하는 欲求量의 比率를 意味하는 것이다.



〈그림 2〉

윗 그림에서는 ①보다는 ②가 價値의 變化에 對해 欲求의 變化가 伸縮的(elastic)이라 할 수 있다.

이 事實은 長期的 觀點에서 보면 相當한 意味를 內包한다. 왜냐하면, 伸縮度가 社會的 發展段階에

伸縮度는 $dD/D/dV/V$ 로서 表示할 수 있다.

但. $D.V$ 는 價値의 欲求와 價値.

$dD.dV$ 는 增加된 欲求와 價値를 나타낸다.

(7) Fred. W. Riggs, "Reflection on Development," Preliminary draft, 1963.

따라 相異하며, 同時에 社會的 發展過程 속에서 Demand Curve 自體가 右漸移하는 傾向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社會가 發達함에 따라서 Demand Curve 가 $D_1 \rightarrow D_2 \rightarrow D_3 \dots$ 로 轉位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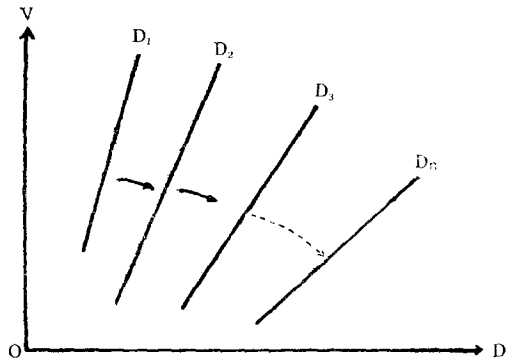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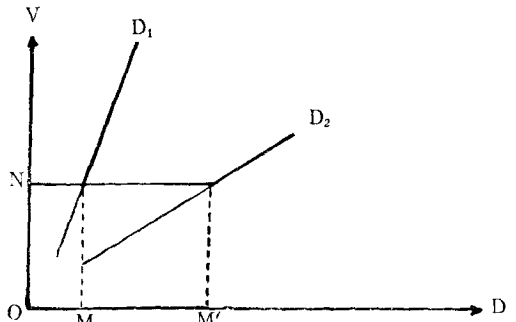


그림 3〉 —Demand Curve의 轉位—



〈그림 4〉

圖表에서 보면, 同一한 價値量 ON에 對하여 D_1 에서는 OM의 欲求를 政治體系에 行하는 데 反하여 D_2 에서는 OM' 의 欲求投射를 行한다.

即, 相對的으로 發展된 政治體系의 Demand Curve라 할 수 있는 D_2 가 D_1 보다 MM' 만큼 더 活潑한 欲求投射를 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와같은 事實을 Riggs의 Prismatic Model과 關聯시켜서⁽⁷⁾ 檢證해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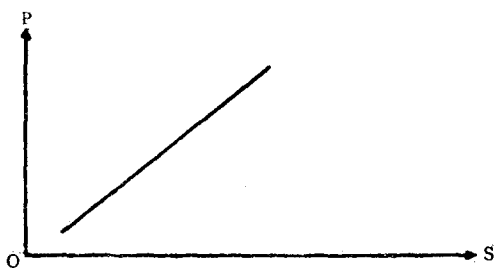
Fused Society에서는 個人的 利益投射活動이 第一次集團인 家族, 氏族에 依해 代行되기 때문에 社會成員의 具體的인 利益이나 欲望이 內面化하기 쉬우며, 또 各 氏族集團은 政治體系의 elite 構成集團에 對해 家父長的 從臣關係에 있기 때문에 社會全體로 보면, 다음의 Refracted Society(潛定的으로 뒷그림에서는 D_2 로 나타나 있다고 보면)에 比해서 同一한 社會價値(ON)에 比해 欲求의 量이 낮다고 (MM' 만큼)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Refracted Society에 있어서는 機能的으로 分化된 "Association"이 發達해 있고, 또 個人的 生活이 이들 "Association"을 通하여 이뤄지는 故로 個人的 欲望投射가 活潑할 뿐만 아니라 社會全體의 觀點에서도 「價値」에 對한 欲求가 傳統的 段階에 比해 深化, 擴大된다는 것이다.

第二項 Supply Curve

前述한 3 變數中 「支持」(Support)와 「決定 또는 政策」(Decisions or Policies)에 依해 $P=f(S)$ 라는 函數關係를 定立할 수 있다(但, 이때 P는 「決定」 또는 「政策」을, S는 「支持」를 意味한다).

欲求가 政治體系에서 機能하여 政治體系의 動態的 要素로서 作用하기 爲하여서는 社會成員의 支持(Support)라는 組織의 努力이 社會各部門에서 發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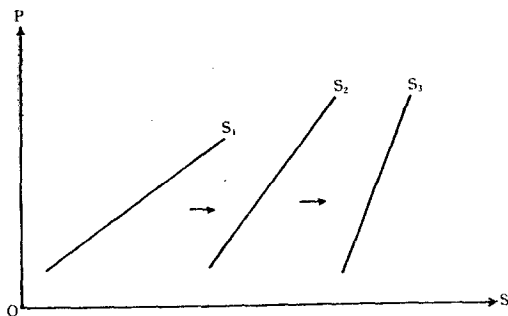
〈그림 5〉

되어야 하는 것이다. 政治體系는 「欲求」와, 이 欲求에 對한 支持의 量과 範圍에 따라 「產出機能」으로서 「決定」을 하고 「政策」을 樹立 執行하는 가운데서 體系의 安定을 維持하고 體系를 發展시켜 나간다고 볼 수 있다.⁽⁸⁾

따라서 위의 函數關係는 다음과 같이 圖式化 할 수 있다고 본다.

直線(便宜上, Supply Curve라 부르기로 한다)의 傾斜는 「支持」와 「政策」사이의 伸縮度를 나타낸다.

圖表에서 보면, Supply Curve가 右上向⁽⁹⁾의 Curve로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產出(Output)로서의 「決定」(Decisions)과 「政策量」(Policies)은 社會成員의 支持(Support)에 依存하며 「支持量」이 많아짐에 따라서 「政策」이 擴大되는 傾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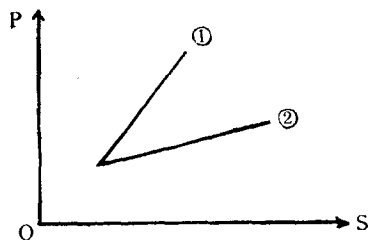
〈그림 6〉 —Supply Curve의 轉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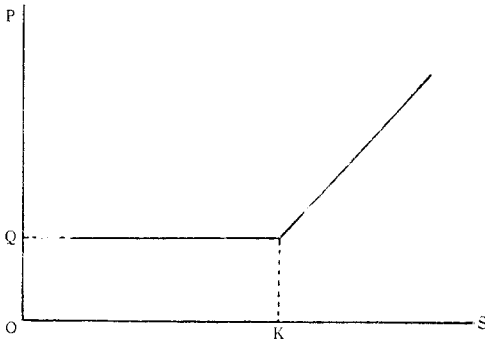
嚴格히 말하면, Supply Curve는 下記圖처럼 一定期間의 平行的 斜角을 具有한다.

OK까지는 S에 對한 P의 伸縮度(elasticity)가 zero인 狀態이다. 따라서 이 點까지는 政治體系는 OA' 의 產出(Output)로서 政治體系를 維持할 수

(8) David Easton, *op. cit.*, pp. 391-394.

(9) 本 論文의 理論構成上 伸縮度는 $\frac{dp}{p} / \frac{ds}{s}$ 로서 表示한다. 그 結果, Demand curve에서와는 달리 ① curve가 ② curve보다 더 伸縮的(elastic)이다.





〈그림 7〉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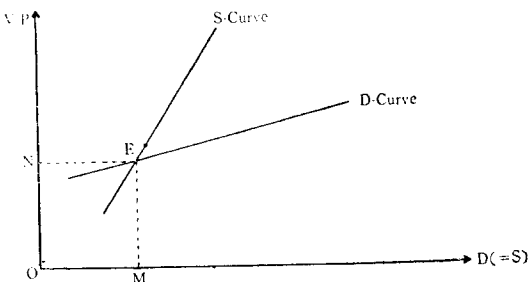
그러나 OK 점을 한번 經過하면 政治體系는 Support에 對해 反應을 해야만 體系를 維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OK까지의 Zero Elasticity Supply Curve는 傳統的 社會에서 흔히 볼 수 있는 形態의 Supply Curve라 할 수 있다.

第三項 均衡點(Equilibrium Point)

이제, 「社會的 價値의 配分點」과 「投入」「產出」사이의 相互關係를 究明해 보아야 할 段階에 到達했다.

圖表上으로 「價値의 配分」或은 「政策의 決定」은 Demand Curve와 Supply Curve가 一致되는 點에서 決定된다.



〈그림 8〉 — 均衡點 —

縱軸에 「價値」와 「政策」을 取하고, 橫軸에 「欲求」

와 「支持」를 變數(variables)로서 取하여, Demand Curve와 Supply Curve를 한 圖表上에서 表示할 때, D-Curve와 S-Curve가 一致하는 點(E)이 「價値의 配分點」 또는 政治體系에서 產出하는 「政策量」의 決定點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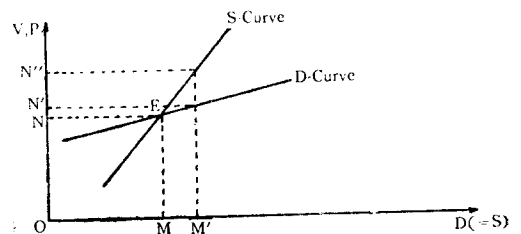
短期的 觀點에서 보면 이 點에서 政策의 決定이 安定性을 具有하고 變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點을 均衡點(Equilibrium Point)이라 할 수 있다.

또, 이때의 「欲求」⁽¹⁰⁾를 「均衡의 欲求」, 이에 對應하는 價値量(或은 政策量)을 「均衡의 產出」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例를 들어 〈그림 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欲求가 均衡의 欲求量(OM)을 넘어 OM'에 이르면, $P=ON'$, $V=ON'$ 가 되어 政策量이 社會的으로 欲求되는 量보다, $N'N''$ 만큼 超過되어 政治體系의 立場에서 보면, $N'N''$ 만큼의 無益한 Energy의 浪費를 招來하게 된다.

따라서 ON'' 의 P(政策量)를 切減시키려는 努力이 나타나게 되며 이 過程이 되풀이 되어 結局 E 點에서 安定을 이루게 된다.

이 點(E 點)에서 「欲求」의 「價値量」과 「產出」로서의 Policies가 同量이 된다.



〈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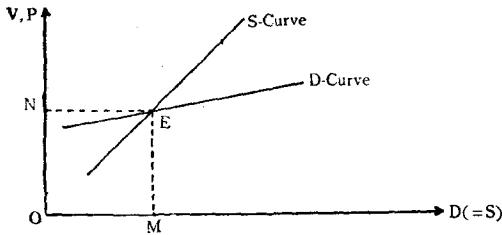
第二節 發展된 政治體系(Developed Political System)

第一項 短期的均衡(Short-term Equilibrium)

發展된 政治體系는 Supply Curve와 Demand Curve의 伸縮度(elasticity)가 크기 때문에 均衡點을

(10) 論議의 便宜上 欲求가 있으면 반드시 支持가 그에 뒤따르는 狀態를 想定했다.

中心으로 하여 오른쪽에서는 언제나 S-Curve가 D-Curve보다 上位에 位置하는 것이다.



〈그림 10〉 —發展된 政治體系의 模型—

그 결과, 短期에 있어서는 政策 및 價値가 均衡點에 收斂한다.

왜냐하면, 發展된 政治體系에 있어서는 生産力이 높은 段階로 發展함에 따라서 그 社會를 支配하는 經濟勢力이 變化하게 되며, 交替된 勢力者들은 그들의 利害關係에 알맞는 經濟制度, 社會, 政治制度를 만들어 낸다는 原則이 未發展된 政治體系보다 훨씬 그 適用可能性이 크다고 볼 수 있고.

文化類型面에서 볼 때, 發展된 政治體系는 Almond의 「The Participant Political Culture」에 屬해 있기 때문에 政治의 「오리엔테이션」⁽¹¹⁾의 對象에 對한 認認, 感情 및 評價의 頻도가 相當히 높은 結果 分化된 政治役割이 存在하고, 또 自身이 所屬되어 있는 政治體制나, 政治 및 行政過程, 그리고, 政治的 參與者로서의 個體의 役割에 關한 「오리엔테이션」이 高度化되어 政治體制에 對한 期待感이나, 變革의 意味가 膨湃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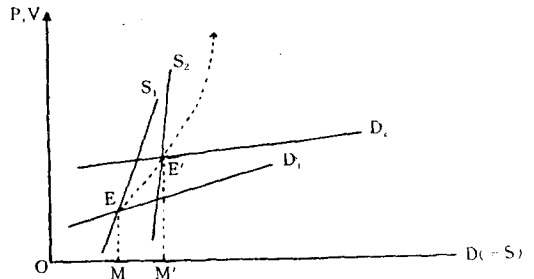
社會體制에 作用하는 葛藤(Conflicts)도 「Realistic Conflict」⁽¹²⁾가 存在하여, 「Non-realistic Conflict」에서와는 달리 目標達成을 爲한 手段에 있어서 alternatives가 存在하게 되어 葛藤이 「divergent dualism」에 對한 解決策으로서 作用한다.

그리하여 短期的觀點에서 觀察하면 政治的 決定이 均衡點(equilibrium point)에 收斂하는 傾向이 있어 安定的(stable)인 政治體系가 維持된다.

第二項 長期的 均衡(Long-term Equilibrium)

國民의 「欲求變化」(Shift of Demand Curve)에 對해서 政治的 產出이 充分히 反應할 수 있는 長期的 觀點에서 보면,

全體的으로 보아 均衡點(equilibrium point)의 軌跡(이것을 均衡線 或은 成長線이라 부르기도 한다)은 〈그림 1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서 右上向하는 形態를 取한다.



〈그림 11〉 —均衡線—

왜냐하면, 〈그림 11〉에서 D-curve가 長期的으로 D₁에서 D₂로 轉位했을 경우, 이에 對應하여 S₁도 S₂로 轉位할 하는 바, 이때 S₂의 傾射도는 S₁에 비해 크게된다. 그 결과, 새로운 均衡點 E'는 S가 同一한 傾射도를 가지고 反應했을 때 보다 왼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다.

均衡線이 發展된 政治體系에 있어서 왼쪽으로 치우치면서 右上向한다는 事實은 國民의 「欲求」에 對한 「政策量」이 未發展된 政治體系에서 보다도 相對的으로 많다는 것을 意味한다.

다시 말하면, 政治體系가 國民의 「欲求」에 對해 敏感하며 「欲求」에 對한 「政策」의 伸縮도가 1보다 크다는 것을 말한다.

또, 發展된 政治體系에 있어서는 國民의 自己利

(11) Gabriel A. Almond and Sidney Verba, The Civic Cultur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ew Jersey 1963. p. 17

(12) Realistic Conflict는 特殊한 欲求挫折(Frustration of Specific Demand)에서 發顯하는 Conflict로서 葛藤의 對象이 뚜렷하며, "Functional alternatives as to means를 갖는다.

Lewis. A. Coser. op. cit., pp 49-50

益表示가 分明하고 利益投射過程에서 發顯하는 葛藤이 完全히 그리고 即時的으로 發表될 수 있는 Social System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長期的으로 보면 D-curve 가 先導的인 役割을 하면서 全體的으로 政治體系를 이끌어 나간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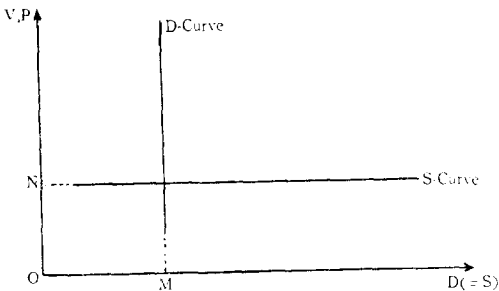
結論的으로 發展된 政治體系에 있어서는 短期에 있어서는 體系的 安定性(stability)을 保持하면서, 또 長期에 있어서는 投入機能(Input Function)에 對한 產出機能(Output Function)의 「高度의 伸縮性」을 具有하면서 全體的으로 政治體系가 擴大되어 간다고 할 수 있다.⁽¹³⁾

第二節 未發展된 政治體系(Underdeveloped Political System)

第一項 初期의 模型(傳統的 模型)

未發展된 政治體系의 初期의 模型이라 할 수 있는 傳統的 段階에 있는 政治體系에 있어서는, D-curve 는 縱軸에 對해 거의 平行한 形態를 取하며 S-curve 도 橫軸에 對해 平行인 位置를 占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傳統의 政治體系에서는 Supply Curve 와 Demand Curve 의 伸縮度(elasticity)가 거의 zero 에 가깝기 때문이며, 圖表上에서 보면 均衡點을 中心으로 하여 D-curve 와 S-curve 가 거의 直角으로 交叉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12〉 一未發展된 政治體系의 模型
(傳統的 段階)一

그 結果, 欲求에 對한 「產出」로서의 「政策」은 體系維持에 必要한 「最少限의 水準」에서 硬直性(rigidity)을 띤다.

「欲求」自體도 社會的으로 統制되며 傳統의 樣式인 慣習의 遵守가 固執되므로 個人은 社會에 全的으로 埋沒하여 身分圈內에서 行動하는 自由만 許用될 뿐이며 傳統의 樣式으로 부터의 背反은 禁壓되고 抑壓當한다. 그 結果, 社會의 一體는 單調, 無色, 反復이며 「慣例主義」 「劃一主義」 「類型主義」 「權威主義」가 絶好의 地盤을 얻게 된다.

政治體系는 統制力을 掌握한 少數 élite 에 依해 專斷的 權威的으로 行使되며 政治體系는 多數國民을 爲해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政權擔當者의 私益充足의 機構(mechanism)로 化한다.

그리하여, 「欲求」의 最少限의 水準에서 「價値」가 政策化되며 圖表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均衡點은 發展된 政治體系에서와는 다른 意味에서 安定的(stable)이 된다.

社會的 葛藤(social conflict)도 社會的으로 “dys-functional”한 것으로 認識되어 葛藤은 構成員의 內面에 深化, 蓄積된다(「葛藤」의 形態도 non-realistic한 性質을 갖는다).

結局, 傳統的인 未發展된 政治體系에 있어서는 政治體系의 D-curve 와 S-curve 의 硬直性 때문에 安定的(stable)인 性向을 가지며 長期的인 觀點에서 보면 均衡點自體가 固定인 特徵을 示顯해 준다.

第二項 過渡的 政治體系

「慣例主義」 「非個人性」 「一例性」을 基本的 特徵으로 하여 「恒常 變함이 없는」(semperidem) 政治體系를 갖는 傳統의 政治體系는 先進的 政治體系에서는 「經濟的 變革」을 契機로 하여, 또 後進的 政治體系에서는 「外部的 刺戟」에 依해 「大轉換」을 始作하여 過渡的 政治體系로 나아간다.

i) 先進的 政治體系의 過渡的 模型

先進的 政治體系⁽¹⁴⁾는 Demand curve 가 恒常主導

(13) 發展된 政治體系에 있어서도 福祉國家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같이 「產出水準」이 社會發展에 따라 國民의 欲求水準에서 停止하는 것이 아니고 그 以上の 擴大를 하는 것이다.

(14) Riggs 는 西方의 國家들은 그 發展過程에서 內生的 發展을 經驗한데 대해 오늘날의 轉移社會는 外生的 發展을 經驗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의 先進的 政治體系는 內生的 發展을 하는 國家의 政治體系라 할 수 있다.

Fred Riggs *op. cit.*, pp. 4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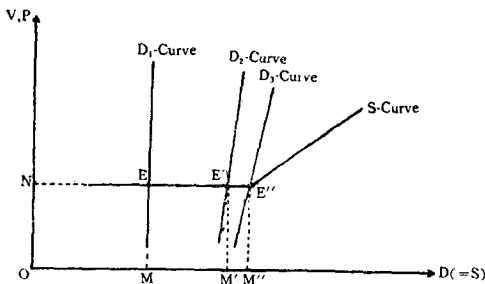
的인 機能을 하면서 政治體系를 先導하는 政治體系로서, 傳統的 模型에서 過渡的 模型에로의 轉換은 經濟的 變革을 契機로 하여 始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歷史적으로 先進的 政治體系라 할 수 있는 西歐의 境遇, 過渡的 政治體系에의 轉換의 契機로서 農村自體內의 生産性向上과 「外來商人의 侵透」를 들 수 있다.

前者에 依해 商業 手工業이 隆興하게 되었으며, 市場特許의 時代, 都市建設의 時代가 發生했으며, 南方의 베니스와 北方의 스칸디나비아人을 通한 外來商人의 侵入으로 閉鎖된 封建社會의 解體가 促進된 것이다.

그 結果, 政治體系에 있어서 S-curve의 專斷의 一方的인 政治體系의 先導가 D-curve에 그 役割을 넘겨주게 됐다.

이러한 事實을 圖表로서 살펴보면,



〈그림 13〉

領主의 苛酷한 榨取下에서 農民의 血汗의 勞動結晶으로서 發生한 剩餘生産(Surplus Products)이 農民에게 委讓되고 外來의 商人의 侵入에 依해 從來 均衡點 E에서 安定된 政治體系를 驅逐하며 封建的 安逸속에서 잠들어 있던 傳統的 政治體系는 D-curve의 移動에 依해 過渡的 政治體系의 模型으로 轉換을 하게 된다.

〈그림 13〉에서 보면 D-2 curve는 社會的 價値에 對해 어느程度 反應을 보여 주기 始作한 形態로서, 個人的 또는 集團的 活動을 通하여 그것의 獲得에 나서기도 하여 伸縮度를 갖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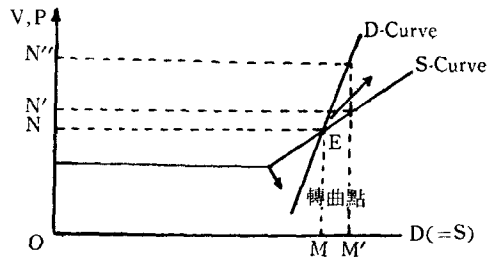
그러나, 均衡點 E'에 있어서 S-curve는 아직도

非伸縮的인 形態를 取하고 있다는 事實때문에 政治體系는 均衡點 E에서와 같은 安定을 維持할 수 없게 되며, 오히려 Demand Curve의 主導勢力에 依한 既存政治體系의 改革이 試圖된다.

그 結果, S-curve의 從來의 主役은 社會의 支配的인 勢力과 손을 잡을 수 밖에 없게 되며, 적어도 그들D-curve의 「欲求」에 對해 反應을 해야할 段階에 到達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13〉에서 보면, □EMM'E'는 潜在的 欲求 不滿狀態를 나타내며, □E'M'M''E''는 顯現的 欲求 不滿狀態를 나타낸다 할 수 있다. 이러한 不滿狀態가 政治體系에 作用하여 S-curve가 反應을 始作하는 均衡點 E''까지는 政治體系에서 「價値」와 「政策」의 水準이 ON에서 同一하게 固定的인 性質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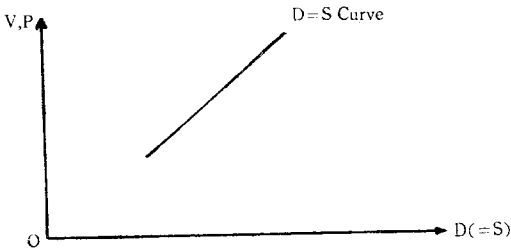
그러나, 一但, 均衡點 E''(이點을 轉曲點이라 하겠다)를 經過하면 政治體系는 擴大, 發展하려는 性質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轉曲點을 經過하면서 政治體系의 D-curve와 S-curve가 伸縮的으로 되기 始作하여, 〈그림 1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均衡點 E의 右側에서 Demand Curve가 Supply Curve보다 上位에 位置하기 때문에 「欲求」가 「支持」하는 「價値量」(ON'')이 「實際的 政策」(ON')보다 많아져(N'N'' 만큼) 政治體系의 維持를 위한努力으로 均衡點이 오른쪽으로 繼續發展하려는 傾向을 갖기 때문이다.



〈그림 14〉

政治體系의 繼續的인 發展은 D-curve와 S-curve의 伸縮度를 더욱 크게하여 結局, D-curve와 S-curve가 一致하는 時點이 存在하게 된다.

이 段階를 經過하면 D-curve가 S-curve보다 均衡點의 右側에서 下位에 存在하게 되는 發展된 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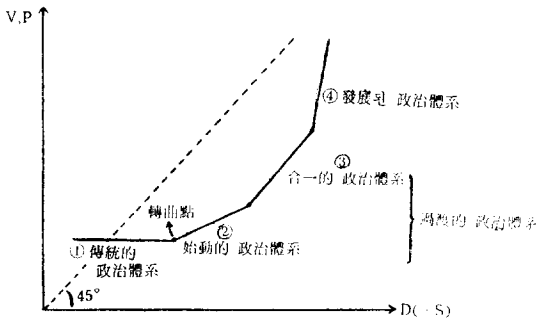
〈그림 15〉

治體系的局面에 突入하게 된다.

結論的으로, 先進的 政治體系的 過渡的 模型은 經濟體制와의 關聯에서 보면,

經濟體制가 ①封建主義 → ②重商主義 → ③產業資本主義 → ④獨占資本主義 等으로 發展의 함에 따라 政治體系는

- ① S-curve 가 絶對的인 先導役割을 하는 傳統的 政治體系→
- ② D-curve 가 S-curve 에 影響을 끼쳐 政治體系 가 伸縮性을 보여주기 始作하여 D-curve 의 先導가 始作되는 「始動的 政治體系」→
- ③ D-curve 와 S-curve 가 完全히 合致되는 「合一的 政治體系」→
- ④ D-curve 보다 S-curve 가 均衡點의 右側에서 下位에 놓이는 「發展된 政治體系」를 經過하면서 發



〈그림 16〉 一先進的 政治體系的 發展一

展해 나가는 바, 過渡的 政治體系는 ②의 始動的 政治體系와 ③의 合一的 政治體系를 包括하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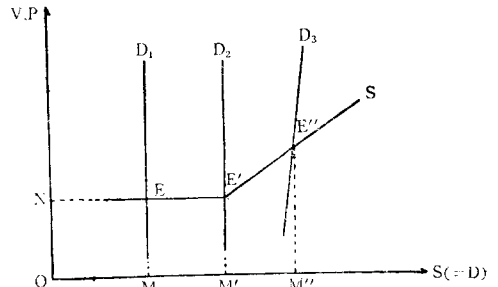
이를 圖表로서 表示하면 위와 같다.

ii) 後進的 政治體系的 過渡的 模型

後進的 政治體系는 合理的인 性向을 가진 少數의 élite 가 政治體系를 이끌어 나가는 政治體系로서 本 論文의 圖表에 依하면 Supply Curve 가 政治體系를 이끈다.

最近에 이르기 까지 傳統的 政治體系 속에 浸滲해 있던 大部分의 後進國이 이에 屬한다고 할 수 있으며 過渡的 模型에로의 轉換의 契機도, 內生的 (endogenous)인 것이 아니라, 多分히 外生的(exogenous)인 性格을 갖는다.

그 結果, 過渡的 段階에 있어서 까지도 S-curve 가 政治體系에서 主導的인 役割을 擔當한다.



〈그림 17〉

〈그림 1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後進的 政治體系下에서는 Demand Curve의 伸縮度가 대단히 非伸縮的이기 때문에 轉曲點(E')를 經過할 때 까지는 D-curve 의 傾斜가 橫軸에 對해 거의 直角을 維持한다. 왜냐하면, 後進的 政治體系는 Almond 의 이른바 The Subject Political Culture⁽¹⁵⁾에 屬하기 때문에 政治的「오리엔테이션」의 對象에 對한 認識, 感情 및 評價의 頻度程度가 낮으며 特히 政治過程인 投入局面과 活動的인 參與者로서의 個體에 對한 「오리엔테이션」이 거의 Zero에 가깝기 때문이다.

反面, 政治體系的 排出局面에 對해서는 「오리엔테이션」의 頻度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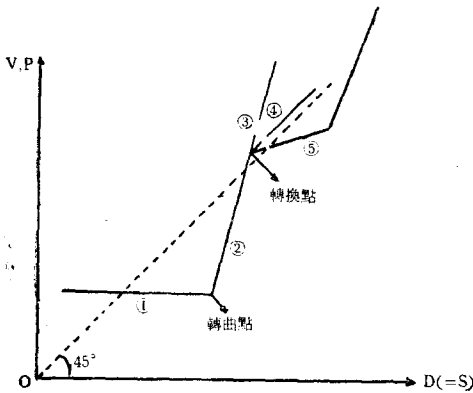
(15) Gabriel A. Almond, and Sidney Verba, *op. cit.*, p. 17

따라서 轉曲點의 突破에 있어, 또는 轉曲點右側에 있어서의 政治體系의 發展에 있어 主導的인 役割은 S-curve가 擔當한다.

그리고, 轉曲點右側에 있어서 均衡點 E는 先進的 政治體系에서와 같이 不安定的(unstable)이 되지만 그 原因은 先進的 政治體系와는 매우 다른 樣相을 띄게 된다.

即, 先進的 政治體系에서는 不安定의 原因이 「欲求」의 「政策」에 對한 超過, 다시 말하면 投入機能의 產出 機能보다 많은데서 나타나는 現象이라 할 수 있으나, 後進的 政治體系의 不安定의 原因은 S-curve의 勞力에 對한 D-curve의 感應도가 낮다는 事實에 主로 起因하는 것이다.

後進的 政治體系의 發展過程을 圖示하면 <그림 18>과 같다.



<그림 18>

<그림 18>에서 ①은 傳統的 政治體系, ②는 轉曲點을 經過한 段階의 始動的 政治體系 ③은 始動的 政治體系가 繼續的으로 作用하는 形態 ④는 合一的 政治體系이며 ⑤는 D-curve의 伸縮度가 커서 政治體系가 D-curve의 主導下에 發展하는, 이른바 「後進的 政治體系의 先進化」를 意味한다고 볼 수 있다.

特定の 政治體系가 具體的으로 어느 方向을 取하느냐는, 政治體系를 構成하는 élite의 主體意識과 그 誠實性에도 크게 依存한다고 할 수 있으나 主된 決定要因은 落後된 經濟를 高度化하려는 「開發類型」

에 依存한다고 볼 수 있다.

先進的 政治體系는 國民의 基盤下에서 스스로 自身의 進路를 決定하여 着實한 發展을 하는데 對해 後進的 政治體系는 不安定한 狀態 속에서 發展方向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이다.

다음에 이러한 未發展된 政治體系 그中 特히 後進的 政治體系의 發展進路를 葛藤의 側面에서 檢討해 보겠다.

第三章 未發展政治體系의 發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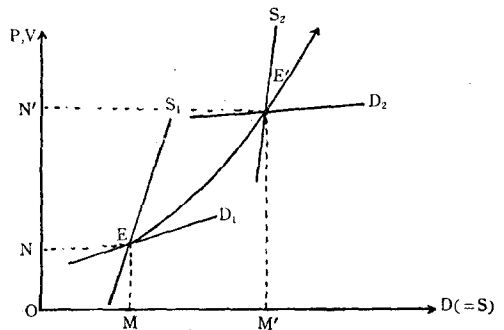
第一節 社會發展과 政治體系의 葛藤의 側面

個個人 또는 集團이 稀少한 資源, 權威, 權力的 地位에 對해 競爭的 欲求를 投射하는 限, 어떤 社會 構造, 政治體系에도 葛藤은 存在하게 된다.

社會가 發達하여 社會의 分化, 專門化가 進展됨에 따라서 葛藤의 重疊性이 많아지고 政治體系의 mechanism이 葛藤을 積極的으로 吸收하여 葛藤이 realistic한 性質을 갖게 된다.

그리하여, 社會의 葛藤은 政治體系의 靜態的 狀態를 脫皮하여 政治體系를 動態化시키는 動力으로서 作用하게 된다.

圖表에서 보면,



<그림 19>

短期에서 보아 安定的인 E를 E'까지 끌어 올리기 爲해서는 MM'만큼의 欲求의 增大가 必要한데 이 欲求의 增大에 對하여 投入曲線(Demand Curve)을 構成하는 集團사이의 政治體系를 둘러싼 葛藤이 커다란 役割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葛藤이 政治體系에 對해서 다음과 같은 重要한 作用을 하기 때문이다. (16) 即

(16) Lewis A. Coser *op. cit.*, 154

① 政治體系에 存在하는 葛藤은 既存의 政治體系의 規範(norm)에 活力을 불어 넣어 주고 또 새로운 規範의 創出에 이바지 하며,

② 葛藤은 環境에 알맞는 새로운 規範을 形成하여 政治體系의 老朽化를 防止할 뿐만 아니라 政治體系內의 새로운 勢力均衡關係에 알맞도록 政治體系를 適應시킴으로서 政治體系의 漸進的인 改革에 寄與하는 것이다.

그러나 未發展된 政治體系에 있어서는 葛藤이 表面化시킬 못하고 內面化하여 葛藤이 政治體系의 發展의 動因으로서 作用할 못하고, 오히려 沮害의 要因으로서 作用하게 된다.

다음에서 이러한 未發展政治體系의 葛藤의 側面을 좀더 詳細히 살펴 보겠다.

第二節 未發展政治體系와 社會葛藤

第一項 傳統的 政治體系

傳統的 政治體系下에서는 親密한 親族關係(Closely knit group)가 多數存在하며⁽¹⁷⁾ 葛藤形態도 抑壓의 인 樣相을 띤다.

傳統的 社會에서는 D. Lerner⁽¹⁸⁾의 指標에 依하든 社會成員이 非流動의 「퍼스낼리티」를 具備하고, 感情移入(Empathy)이 되어 있지 않으며, 또 富(Wealth) 産業化(Industrialization), 都市化(Urbanization) 및 教育程度가 낮다.⁽¹⁹⁾

一次集團(primary group)이 支配의이며 利害關係가 共同體的 集團(communal group)에 뿌리박고 있고, 또 그러한 集團을 通하여 表現되기 때문에 競争과 協商을 通한 利益의 統合(aggregate) 가능성은 적어지며, 成員相互間의 葛藤은 禁忌의 것으로 看做되고, 集團의 葛藤은 抑壓, 蓄積, 內面化되는 것이다.

또, 이러한 社會에서는 葛藤의 有用性을 爲한 前提條件인 葛藤의 制度化(Institutionalization)와 忍耐(Tolerance)⁽²⁰⁾가 存在할 수 없어, 葛藤의 發顯이 오히려 社會에 對해 dysfunctional 하게 作用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傳統的 政治體系에서는 葛藤을 通한 政治體系의 環境適應力이 喪失된 故로, 政治體系의 變化가 漸進的인 形態를 取할 못하고, 「쿠데타」等 急進的인 形態를 取하며 政權交替에 있어 流血과 肅清이 存在하게 된다.

傳統的 政治體系는 表面上的 安定위에 숨어 있는 葛藤의 蓄積이 政治體系의 不安定要素로서 作用하여 政治體系의 變動이 急激한 性質을 띄게 된다.

이러한 傳統的 政治體系에 先進的 發展된 政治體系가 接하게 됨에 따라 政治體系가 轉曲點을 넘어 過渡的 段階에 突入하게 되는 것이다.

第二項 過渡的 政治體系

政治體系의 均衡線이 轉曲點을 넘은 過渡的 政治體系에 있어서는 個人活動사이에 重疊性이 나타나고 集團을 通한 個人的 活動에 交叉現象이 나타나 葛藤의 形態가 多分히 「realistic」하게 된다.

그러나 後進的 政治體系에서는 早速한 經濟의 成長을 達成할 目的에서 強力한 勢力에 依한 政治體系의 獨占現象이 나타나, 葛藤이 政治體系를 爲한 推進體로서 作用할 素地를 남겨 놓지 않는다.

그 結果, 政治體系는 生産力의 發展에도 不拘하고, 初期의 全體主義의 性格 때문에 政治體系를 사이에 두고 Input 와 Output 사이에 「政治的 惡循環」이 發生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러나, 이 段階에서 政治體系의 主體의 努力으로 強力한 生産性의 增大가 나타나, 社會成員사이에 「criss-cross」程度가 높아지고, 個人的 重疊性의 程度가 加速化되어 全體의 으로 相當한 Refraction 이 達成되면 葛藤이 realistic 한 側面을 더욱 많이 具有케 되어 葛藤의 合理的 方案이 講究되고 또 成員사이에 葛藤에 對한 Tolerance가 많아져 政治體系의 D-curve가 伸縮의이게 되어 D. Lerner의 參與者社會(participating society)⁽²¹⁾에로의 移行, 다시 말하여, 「後進的 政治體系의 先進的 政治體系化」가 達

(17) *Ibid.* p. 52.

(18) Daniel Lerner, *The Passing of Transitional Society*, Free Press of Glencoe, Illinois. 1958

(19) S.M. Lipset, "Some Social Requisites of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Legitima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III March. 1959 pp. 69-105.

(20) Lewis A. Coser, *op. cit.*, p. 52.

(21) Daniel Lerner *op. cit.*, p. 3

成될 수 있게 된다.

要컨데, 政治體系內에 있어서 「欲求」가 多樣化하고 社會的 葛藤이 社會體系에 對해 有效한 機能을 하여야만 後進的 政治體系의 脫皮가 可能한 것이다.

社會構成員의 經濟的 生活에서의 分業이 發達하여 個人生活의 重疊性이 成熟되고, 利益集團이 機能의 으로 分化하여 葛藤이 realistic 한 性質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第四章 韓國政治體系의 特徵과 그 問題點

第一節 韓國政治體系의 特徵

Almond는 現代의 政治體系의 特徵으로서 (22) ① 高度의 分化(High degree of differentiation) ② 明白性(Explicitness)와 ③ 政治構造의 機能의 明確化(Functional distinctiveness of political and governmental structures)를 들면서 政治的 社會化過程에서의 第二次의인 構造의 役割을 크게 期待하고 있다.

韓國은 後進地域의 他國家群에 比해서 相當히 高度化된 社會流動(social mobilization) 現象을 보이고 있으나, 自然資源(Natural resources)과 投資가 不足하여 經濟的 發展은 늦고 過渡的 社會에서 흔히 나타나는 人口爆發狀態에 直面하고 있다.

早速한 經濟成長에 不足한 資源을 充足하기 爲해서는 強制的 貯蓄(Forced Saving)에 依存할 수 밖에 없는 바 이와같은 強壓의 手段은 既往의 高度化된 國民의 意識水準 消費水準 等 때문에 隘路에 부딪친다.

그 結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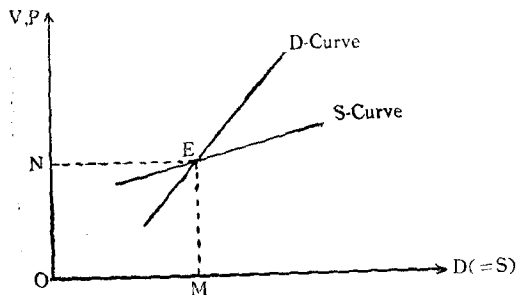
① 韓國의 政治體系는 經濟的 必要性에서 產出側(Supply Curve)에 依한 政治體系의 獨占化 및 中央集權의 傾向이 容易하게 나타난다.

특히 政治體系發展의 또 하나의 重要한 要素인 投入側에 있어서 政治體系에 壓力團體로서 役割을 하는 利益集團이 ④都市地域에서는 利益集團의 數의 過多現象이 나타나고 ⑥利益集團成員間의 主體意識이 缺乏狀態에 있으며 利益集團이 政治權力의 持女化할 우려가 많고 ⑤利益投射가 活潑하지 못

하고 浸潛하여 非公開的인 性質을 갖기 때문에 (23) 政治體系에 對한 利益投射活潑이 機能的으로 分化하지를 못하고 利益集團의 質的脆弱性을 招來하여 利益集團의 構造를 「垂直下向化」시키고 利益集團은 「權力의 客體」로 化했다.

② 그 結果, 政治體系에 있어서 欲求의 量은 廣範하나 深度가 弱하기 때문에 (24) 政治體系의 Demand Curve는 極히 非伸縮的인 前近代的 形態를 取하게 한다.

以上の 理由에서 韓國政治體系는 <그림 2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均衡點의 右側에서 Demand Curve가 Supply Curve 보다 C上位에 位置하는 未發達된 政治體系에 屬하는 것이다.



<그림 20>

③ 韓國社會는 封建的 社會의 諸特性을 아직도 지니고 있으며 특히 韓國의 農村은 過去의 血緣的 要因, 身分關係가 아직도 殘存하여 있고 比較的 近代化되었다고 할 수 있는 都市도 農村과의 緊密한 血緣的 關係때문에 完全히 機能的으로 分化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韓國政治體系에서 나타나는 葛藤은 non-realistic 한 段階를 脫皮하지 못하고 있으며 葛藤을 合理的으로 解決하려는 模索보다는 非合理的인 感情的 解決方案이 優勢하고 葛藤의 發顯 및 解決機關으로서의 政黨, 國會, 選舉等이 正常的이고 健全한 機能을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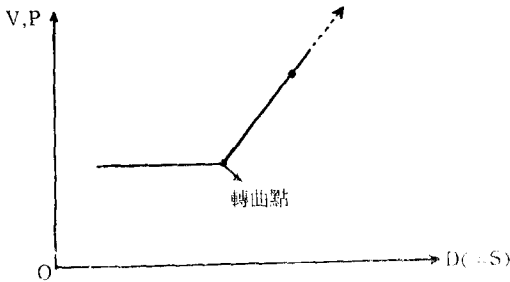
結果的으로, 韓國의 政治體系에 있어서의 葛藤이

(22) G.A. Almond & James. S. Coleman. The Politics of the Developing Areas, Princeton. New Jersey, Prineeton University Press. 1960. p. 532

(23) 安海均 「韓國의 行政府와 壓力團體」 思想界 1966. 12月號 第14卷 第10號 p. 51

(24) 李邦錫 「政治體系分析에 對한 接近」 現代의 政治學, 서울—潮閣. 1965. p. 96

社會의 安定化要素(stabilizing factors) 및 發展要素(developing factors)로서 作用하여 政治體系의 漸進的 改革에 기여하길 못하고, 오히려 社會的인 害惡으로 認識되어 政治體系의 革命的 變革을 結果하여 韓國의 政治體系를 後進的 政治體系의 過渡的 模型에 머물러 있게 하고 있다.



〈그림 21〉

第二節 韓國政治體系의 發展

投入曲線과 產出曲線의 硬直性에서 惹起된 政治體系의 「動脈硬化症」은 새로운 環境에 政治體系를 適應시키지 못하고 政治體系의 崩壞를 結果하며, 抑壓된 內的 葛藤의 暴發은 그때까지 쌓아 올린 經濟的 成果마저도 後退시킬 可能性이 크며 政治體系는 國民의 無關心속에서 惡循環을 되풀이 할 우려가 많게 된다.

따라서 經濟的 發展과 더불어 後進國에서 重點을 두어야 하는 것은 「安定된 그리고 感應도가 큰 政治體系」의 完成인 것이다.

이를 達成하기 위해서는 ①于先, 投入側에서 國民의 欲求發顯을 크게하며 Demand Curve의 伸縮度를 크게하고 ②產出側에서는 國民의 欲求를 政策으로 吸收하기 爲한 「情報吸收通路」를 最大化하며 Supply Curve에 伸縮度를 賦與해야 하는 것이다.

韓國의 政治體系에 있어서는 政治體系의 先進化를 爲해 投入側에 있어서는 Supply 側의 主體가 또한 同時에 élite 意識을 가지고 Demand Curve에 大部分 國民의 欲求를 投射해 주어야 하며 특히 mass com의 「下意上達」과 輿論形成機能에 依存해야 하는 것이다.

產出機能面에 있어서는 Supply Curve의 伸縮度를 크게 해 주기 爲하여 國民意思를 尊重해야 하며 議

會審議期間을 充分히 保障하고, 國民의 欲求를 最大限으로 吸收하기 爲해 mass media를 活用하며 公聽會制度等을 採擇해야 한다.

또 葛藤의 有効한 機能을 充分히 認識하여 協商에 對한 社會的 認識을 새롭게 할 것이 必要하며, 葛藤의 仲裁를 言論機關에 期待하고 相互間의 寬容과 政黨間의 健全한 批判을 促進해야 한다.

要컨데, 韓國政治體系는 短期的으로 보아서는 民主的 意識을 갖춘 「官僚」와 言論機關의 活潑한 「投入代理」活動을 크게하며 長期的으로는 經濟發達에 따른 社會의 分業化에 依해 機能的으로 分化된 各種利益集團의 積極的인 活動을 助長하는 方向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렇게 함으로서 「經濟的 發展」뿐만 아니라 「政治的 後進性」의 脫皮도 可能하다고 본다.

第五章 結 論

本 論文에서는 模型化의 方法(model building)으로 政治體系理論(political system theory)이라 불리우는 均衡理論(equilibrium theory)과 葛藤理論(conflict theory)을 導入하여 基本圖標(Demand Curve와 Supply Curve)에 依해 兩理論의 接近을 試圖해 보았고(第二章), 未發展政治體系로서 類型화된 非西歐政治體系의 運動方向을 模索했으며(第三章) 끝으로 韓國政治體系의 構造와 方向에 關해서 概括的으로 論及해 보았다(第四章).

本 論文이 主 分析手段으로서 想定하고 있는 投入曲線과 產出曲線이 아직 確定的으로 그 妥當性을 認定받은 것이 아니며 특히 그 前提條件으로서 「價値」와 「欲求」「政策」의 「計量可能性」은 完全히 未知數에 屬한다.

그러나 從來의 政治體系에 關한 兩大理論이라 할 수 있는 均衡理論과 葛藤理論의 接近可能性을 試圖해 보았고, 또 圖式에 依해 政治體系의 一般的 傾向 或은 方向을 模索할 수 있었다는 데서 하나의 意義를 찾아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끝으로 처음 試圖하는 政治體系圖式化의 模型인 만큼, 本 論文이 많은 虛點을 自體에 內包하고 있음을 自省하고 앞으로 이러한 視點에서 보다 나은 政治體系의 類型化가 發展되기를 빈다.